

3대동거가족의 세대별 침실공유실태와 노인주거에 관한 의식 및 동거만족도 비교

Differences in the Housing Norms and Satisfaction
among the three Generations of the Extended Families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대학원 김은정
부교수 조재순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 : Kim, Eun Jaung
Associate Professor : Cho, Jae Soon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선행연구 고찰	V. 결 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with sharing a bedroom among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and the differences in the housing norms and satisfactions among the three generations of the extended families in Cheong-Ju city. Each three generations of the 50 extended families was interviewed with the questionnaire designed for each generation. The respondent family had at least one child aged from 10 to 14 years old.

The results showed that 40.0% of the elderly parents and 76.0% of the grandchildren shared a bedroom with someone beside a spouse, while about 90.0% of married couples had their own bedrooms. However, sharing a bedroom did not reduce the housing satisfaction of the grandparent(s) and the grandchild. The living arrangement of coresidence was mostly preferred by the grandparents, followed by the parents. The younger generations reported the more alternatives in living

arrangement for the elderly. The number of bedroom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be considered with coresidence of three generations but the most inadequat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housing to coreside.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elderly housing norms and coresidence housing satisfactions among the three generations. The grandparents were most satisfied with coresidence living arrangement, followed by the grandchildren and the daughters-in-law.

I. 서론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은 결혼한 자녀 가족과 함께 3대가족형태를 이루어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족형태이며 또한 보편적인 가족규범으로 인식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노부모 부양은 노부모 자신이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녀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자녀책임 부양의식에 관한 통계수치를 보면(통계청, 1990, 1995) 책임소재가 장남이나 아들 모두에서 아들과 딸 모두의 책임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녀책임 부양의식의 비중은 1979년의 59.8%에서 1988년에는 79.2%로, 다시 1994년에는 87.3%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한 핵가족 비율의 증가와 개인주의화 추세 및 세대간 가치관 차이에 의해 중년층을 중심으로 3대 동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3대동거가족형태가 여전히 현재 우리 나라 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거주형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51.4%가 기혼자녀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가옥 팀, 1994). 더욱이 현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선가정 후사회보장' 원칙하에 노부모 부양책임을 일차적으로 자녀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노부모와 동거하는 3대동거가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이 되면 주택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각 세대간의 생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자의 요구에 맞는 주택을 확보하는 것은 3대동거생활을 원만히 영위하기 위해 중요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3대동거가족을 위한 노인주거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3대동거주택에 관한 연구가 한국노인주거연구의 약 13.7%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노인주거연구의 특징적인 연구주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경주 외, 1995).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대상의 가족형태를 제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로 예비노인인 중년층을 대상으로(신경주, 1989; 이혜순, 1987; 지순 외, 1986; 최정신, 1990, 1992a, 1992b; 최정신·신경주, 1991a, 1991b) 이들이 원하는 3대동거가족형 주택계획에 필요한 실내외 주거환경 및 근린환경에 대한 요구조건을 파악하는데 그쳐 현재 3대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주생활을 심층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3대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생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대한주택공사, 1987; 문숙재·차성란, 1989; 박하진, 1985; 신경주·최정신, 1989; 이연숙 외, 1992; 조원덕, 1984; 현정애, 1991). 그뿐 아니라 이 연구들은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3세대 구성원 가운데 노부모 중 한 명만 하거나(박하진, 1985; 현정애, 1991) 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노인이나 주부 또는 손자녀 중 한 명을 하거나(최정신·신경주, 1991) 주부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대한주택공사, 1987; 문숙재·차성란, 1989; 이연숙 외, 1992; 조원덕, 1984). 따라서 3대동거에 대한 연구결과에 손자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3대동거가족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조건에 거주하는 3세대간의 의식 차이를 비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 주로 서울과(문숙재·차성란, 1989; 박하진, 1985; 신경주·최정신, 1989; 이연숙 외, 1992; 현정애, 1991) 대도시에(대한주택공사, 1987; 조원덕, 1984) 거주하는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대가족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3대동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아파트에 거주하거나(신경주·최정신, 1989; 이연숙 외, 1992; 현정애, 1991)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대한주택공사, 1987; 박하전, 1985) 하고 있다. 3대동거가족의 연구내용에 있어서도 주관적 주거과밀에 관한 연구(문숙재·차성란, 1989)와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현정애, 1991)를 제외하고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3대동거주택에 관한 연구와 같이 3대가족형 공동주택개발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3대동거가족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의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3대동거가족의 노인, 주부, 손자녀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침실공간공유실태를 알아보고, 각 세대간의 노인주거에 관한 의식과 현 주거의 동거적합도 및 동거만족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3대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3대동거가족의 일반적인 주생활 실태와 3대동거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기혼자녀와 살고 있는 3대동거가족 노인의 66% 이상은 장남가족과 동거하고 있으며 25% 정도는 장남이외의 아들가족과 동거하고 있어(대한주택공사, 1987; 박하전, 1985) 3대동거노인의 90% 이상이 아들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전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가옥 외, 1994)와 비슷한 수치이다.

노부모 양친 모두가 기혼자녀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22.7%(대한주택공사, 1987) 내지 37.0%(박하전, 1985)로 노부모 중 편친과 동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편친의 경우는 시부모와는 시모와 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3대동거가족의 약 60%가 자녀부부 결혼시부터 계속해서 동거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대한주택공사, 1987; 문숙재·차성란, 1989), 가족수는 평균 5.4명(대한주택공사, 1987; 이연숙 외, 1992) 내지 6.4명(최정신·신경주, 1992)으로서 3대동거가족의 55.2%(문숙재·차성란, 1989)

내지 80.6%(이연숙 외, 1992)가 5~6명의 가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동거가족의 주거특성으로는 우선 자가소유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주거의 규모와 방의 수는 다양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공사, 1987; 문숙재·차성란, 1989; 박하전, 1985). 주공간의 사용에 있어 노인전용실의 확보율은 기혼자녀부부의 전용실 확보율(62.7% 이상)보다 낮은 41.0%(박하전, 1985) 내지 87.3%(신경주·최정신, 1989)로 연구대상자 표집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랐다. 또한 노인실을 손자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율도 12.7%(신경주·최정신, 1989) 내지 46.0%(박하전, 1985)로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낮았다. 물론 예상된 결과이지만 방의 수가 많은 주택에 거주할수록 노인전용실 확보율이 높아지나 이는 가족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 편친만 거주하는 경우보다 양친 모두 있는 경우에, 편친 중에서도 시모보다는 시부와 사는 경우에 노인의 전용실 확보율이 높았다(대한주택공사, 1987; 박하전, 1985). 또한 딸자녀 연령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어 딸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녀부부의 전용실 확보율이 높은 반면 노인의 전용실 확보율은 낮았다(대한주택공사, 1987).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실을 타가족구성원과 공유하는 여부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3대동거주택 거주 노인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한 편의 연구(현정애, 1991)에서만 노인전용침실이 있는 노인이 방을 타가족원과 공유하는 노인보다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을 뿐이다.

3대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한 3대동거에 관한 의식 수준을 연령층으로 나누어 보면 노년층과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높았다(대한주택공사, 1987; 신경주·최정신, 1989). 또한 현재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50대 이상 노인들은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미혼자녀가 모두 결혼한 후에도 계속 기혼자녀가족과 동거하기를 희망하였다(지순 외, 1986). 그러나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중년층 기혼자녀는 동거하지 않는 중년층보다 자신의 자녀 결혼후 기혼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낮았다(최정신, 1990). 그리

나 이러한 동거의식에 관한 연구결과는 한 가족구성원인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 3대간의 동거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편, 현 주거상황에 대한 거주자의 반응인 동거만족도나 주거적합도를 밝힌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와 유사한 개념인 주관적 주거과밀에 관한 연구에서는 같은 주거상황에 대해서 주부가 시모보다 주거과밀을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과밀의 인지에 있어서 시모와 주부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숙재·차성란, 1989). 이 결과는 3대동거가족의 세대간 동거만족도와 주거적합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주관적 주거과밀이 시모와 주부 모두 현재의 주거수준과 기대하는 이상적 주거수준과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인지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3대동거가족에게 얼마나 적합한가 또는 희망하는 3대동거주택의 조건(규모나 방의 수 또는 유형 등)과 어느정도 일치하는가 하는 주거결함(Morris & Winter, 1978)의 개념을 적용하여 현 3대동거만족도나 주거적합도를 밝혀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도구의 작성

3대동거가족의 일반적인 주생활과 주거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주시에 3대가 같이 살고 있는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주시의 전지역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구역을 나누고, 주거 유형의 분포를 고려하여 8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의도 표집된 8개 초(4개)·중학교(4개)에서 난수표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중 학년별로 1학급씩 20학급을 무선 표집한 후, 선정된 학급에서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목록을 작성하여 전화로 면접을 승낙받은 후 방문하였으며, 소수는 응답가구의 소개를 통한 눈덩이표집도 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주부용, 노부모용, 손자녀용의 3가지이며, 노인

주거에 관한 의식과 동거만족도는 3세대 모두에게, 주거공간공유실태는 노부(모)와 손자녀 세대에게, 3대동거용 주거의식과 주거적합도는 노부(모)와 주부에게 각각 질문하였으며,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인 사항은 주부용 질문지에 포함시켰다.

2. 자료수집 및 처리

동거가족의 노부모, 손자녀, 주부 3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을 받은 가정교육진흥 대학원생 3명이 질문지를 가지고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한 조사원이 주부와 면접하는 동안 다른 조사원은 노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면접을 하였다. 면접시간은 응답자 당 20~40분으로 1가구 당 약 100분 걸렸다.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1994년 7월 3일부터 4일까지 4가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는 1994년 7월 5일부터 18일 사이에 총 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가족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면 <표 1>과 같다. 노인조사대상자 모두 장남(74.0%)이나 장남이외의 아들(26.0%)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노부모의 생존형태를 보면 28.0%의 가족이 노부모 양친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68.0%는 노모만, 4.0%는 노부만 생존해서 72.0%가 편부(모)와 살고 있었다. 노부모 응답자의 94.0%가 노모이었으며, 응답한 손자녀의 성별은 손자가 40.0%이고 손녀가 60.0%이었다. 조사대상가구의 48.0%가 3명 이상의 손자녀가 있었으며 평균 가족수는 5.9명이었다. 주부의 평균 연령은 39.0세이었으며 52.0%의 주부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N = 50)

	변수	구분	N (%)	변수	구분	N (%)
가족특성	월평균 가계소득	120만원 미만	14 (28.0)	남편학력	중졸이하	13 (26.0)
		120~179만원	18 (36.0)		고 졸	17 (34.0)
		180만원 이상	18 (36.0)		대졸이상	20 (40.0)
	남편의 직업	교수, 교사	9 (18.0)	노부모와 분가경험	결혼후 계속	34 (68.0)
		사무직	13 (26.0)		분가후 동거	9 (18.0)
자영업/공업 단순노무직		22 (44.0)	동거, 분가후 재결합		7 (14.0)	
가족수	4 명	1 (2.0)	남편의 출생순위	장 남	37 (74.0)	
	5 명	18 (26.0)		장남외 아들	13 (26.0)	
평균5.9명	6 명	17 (34.0)	재 사 지내는 여 부	지낸다	39 (78.0)	
	7 명	11 (22.0)		안지낸다	11 (22.0)	
	8 명	3 (6.0)		평 균	연(4.5)회	
주거특성	소유형태	자 가	42 (84.0)	주거규모	25평 이하	15 (31.3)
		전 세	7 (14.0)		26~32 평	18 (37.5)
		월 세	1 (2.0)		33평 이상	15 (31.2)
	주거유형	한옥주택	5 (10.0)	방의수	2 개	5 (10.0)
		양옥주택	21 (42.0)		3 개	29 (58.0)
연립주택		2 (4.0)	4 개		13 (26.0)	
저층아파트		8 (16.0)	5 개		2 (4.0)	
고층아파트		14 (28.0)	6 개		1 (2.0)	
평균3.3개						
노부 (모) 응답 자 특 성	응답자 성 별	할아버지	3 (6.0)	직 업	없 음	47 (94.0)
		할머니	47 (94.0)		단순노무직	3 (6.0)
	노부모 생존형태	할아버지만	2 (4.0)	학 력	무 학	27 (54.0)
		할머니만	34 (68.0)		국 졸	21 (42.0)
		양친 모두	14 (28.0)		중졸이상	2 (4.0)
연령(만)	64세 이하	7 (14.0)	건 강	매우 건강	3 (6.0)	
	65~69세	14 (28.0)		건강한 편	15 (30.0)	
	70~74세	14 (28.0)		보통이다	12 (24.0)	
	75~79세	11 (22.0)		나쁜 편	15 (30.0)	
	80세 이상	4 (8.0)		매우 나쁨	5 (10.0)	
평균71세						
주부 응 답 자 특 성	연령(만)	32~34세	4 (8.0)	직 업	사무직	5 (10.0)
		35~39세	24 (48.0)		교 사	7 (14.0)
		40~44세	17 (34.0)		자영업	9 (18.0)
		45~47세	5 (10.0)		서비스직	5 (10.0)
		전업주부	24 (48.0)			
학 력	중졸 이하	18 (36.0)				
	고 졸	21 (42.0)				
	대졸 이상	11 (22.0)				
손 자 녀 응 답 자 특 성	성 별	남 자	20 (40.0)	형제자매 구성분포	외 동 딸	1 (2.0)
		여 자	30 (60.0)		2남 / 2녀	10 (20.0)
	연령(만)	10 세	4 (8.0)		1남 1녀	15 (30.0)
		11 세	10 (20.0)		1남 2녀	10 (20.0)
		12 세	16 (32.0)		2남 1녀	8 (16.0)
		13 세	9 (18.0)		1남 3녀	3 (6.0)
		14 세	11 (22.0)		2남 2녀	1 (2.0)
			1남 4녀	2 (4.0)		

IV. 결과 및 해석

1. 3대동거가족의 침실공간공유실태

일반적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방의 수가 3.3개이고, 평균 가족원수는 5.9인이며, 손자녀가 중·고등학교 재학시기에 속하는 가구가 62.0%이었던 실정으로 미루어 노부(모) 세대와 손자녀 세대가 방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와 방을 함께 사용하였다.

방이 3개인 26가구의 경우 노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5가구)에는 노부모가 대체로 독방을 사용하였으나, 1남 3녀의 손자녀가 있는 한 가구는 노부부가 막내 손자와 함께 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만 생존해 계신 한 가구의 경우는 할아버지가 큰 손자와 방을 공유하고, 여동생과 남동생이 함께 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할머니만 계신 23가구 중 13가구는 할머니가 독방을 사용했고, 방을 공유하는 10가구의

〈표 2〉 노부(모)와 침실공간공유자

N = 50

노부(모) 방 사용 유형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	계
	두분 모두	할머니	두분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 모두	할머니	두분 모두	
독 방			4		13	5	1	4	1	1	1	30
손자 1명과			1	1	4			3				9
손녀 1명과		1			3							4
손녀 2명과		2			2							4
3명 이상과	2				1							3

침실공간공유실태에서 노부(모)의 60.0% 그리고 손자녀의 24.0%가 독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독방이 없는 노부(모)(20가구)의 65.0%(13가구)가 1명의 손자나 손녀와 방을 공유하고 있었고, 7가구(35.0%)의 노인인 2명 이상의 손자녀와 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60.0%가 방을 공유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기혼자녀부부가 방의 수에 관계없이 1가구만을 제외하고는 독립된 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사실이다.

먼저 노부(모)의 방 사용 실태를 방의 수별로 분석해보면(〈표 2〉), 방이 4개 이상인 16가구 중 13가구의 노부(모)가 독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방이 4개 이상 있는 주택에서 노부(모)가 손자녀와 방을 함께 사용하는 세가족은 손자녀가 1남 2녀, 1남 3녀, 1남 4녀인 가구로 모두 할머니가 막내인 손자

노모 가운데 손자녀가 1남 1녀인 세 가족은 할머니가 작은 손자와, 1남 2녀 또는 2남 1녀인 세 가족은 1남 또는 1녀와, 손자녀가 1남 2녀인 한 가족은 손자의 학업 때문에 할머니가 손녀 2명과 방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밖에 손녀 2명이 모두 할머니와 같이 있는 것을 원해서, 손자녀가 1남 3녀로 할머니가 막내 손자와, 손자녀가 1남 4녀로 할머니가 어린 손자녀 3명을 보살피기 위해 노모와 손자녀가 방을 공유하는 가구가 각각 하나씩 있었다.

한편 방이 2개인 5가구는 대부분 부부가 방 하나를 사용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나머지 가족원 모두가 다른 방을 사용하고 있어서 조부(모)가 전용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들 가운데 손녀만 1명 있는 가구와 2명 있는 가구는 할머니가 손녀와 방을 공유하였고, 부부가 자녀와 함께 방을 사용한 가족은 1남 2녀 중 1남은 부모와 손녀 2명은 조모와

방을 함께 사용하였다. 4명 이상이 방을 함께 사용한 두 가구는 부부가 독립된 방을 사용하고, 다른 방을 노부모+시동생+1남1녀 또는 노모+2남1녀가 사용하여 방 하나를 3대가 5명 이상이 함께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33.6%가 손자녀와 방을 공유한다는 선행연구결과(여성개발원, 1989)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반면에 독방을 갖지 않은 손자녀에 대해 알아보면 방을 공유하는 손자녀 응답자 38명(76.0%) 중 60.6%는 2명이 방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28.9%는 3명이, 10.5%는 4명 이상이 방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대상별로 살펴보면 형제나 자매끼리만 공유하는 경우가 이들 응답자의 50.0%이었으며, 조부(모)와 공유하는 경우가 39.5%, 그외에 부모(2.6%) 또는 삼촌(2.6%)과 방을 공유하였고, 노부모+자녀부부+1남1녀인 두 가구는(5.3%) 중학생인 자녀들의 공간분리를 위해 동생이 생활용품을 부모방에 두고 거실에서 임시로 취침하고 있었다. 방을 같이 사용하는 손자녀의 63.2%가 다른 가족원과 방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3대동거가족의 공간공유는 방의 수와 가족 구성에 따라 주로 노부(모)와 손자녀 또는 손자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세대별 노인주거에 관한 의식

3대동거가족의 구성원 각각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 노인은 자녀가 결혼한 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노인주거에 대한 의식을 알아본 결과(<표 3>), 노부(모) 응답자의 대다수(82.0%)는 결혼한 아들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살던 집에서 노부부만 사는 것에는 12.0%만이 좋다고 응답해서 기혼자녀가족과의 동거를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4.0%의 주부가 결혼한 아들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2.0%는 살던 집에서 노부부만 사는 것이, 14.0%는 노인전용주택에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여 선호하는 노인주거형태가 다양하였다. 주부는 노부(모)에 비해 기혼자녀와 별거지향적(56.0%)이었으며, 노인시설주거(16.0%)도 선호하였고, 동거를 원하는 경우에도 노인보다는 원하는 동거자녀의 성별을 덜 구별하였다.

손자녀의 경우는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경우와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경우로 나누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를 알아보았는데, 74.0%가 부모가 노인이 되면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동거자녀의 성별 구별성향은 부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부모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결혼한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비율(44.0%)보다 손자

<표 3> 노인주거에 관한 세대별 주거의식 비교

N = 50(%)

거주 형태	응답자	주 부	노부(모)	손 자 녀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자신이 노인이 되면
결혼한 아들가족과 함께		17 (34.0)	41 (82.0)	18 (36.0)	11 (22.0)
결혼한 딸가족과 함께		1 (2.0)	0	6 (12.0)	1 (2.0)
결혼한 아들가족이나 딸가족과 함께		4 (8.0)	2 (4.0)	13 (26.0)	4 (8.0)
자녀가 사는 지역에서 노부부끼리		4 (8.0)	0	4 (8.0)	5 (10.0)
살던 집에서 노부부만		16 (32.0)	6 (12.0)	5 (10.0)	18 (36.0)
노인을 위해 설계된 노인전용주택		7 (14.0)	0	2 (4.0)	4 (8.0)
시설이 잘 갖추어진 노인전용 초고층아파트		1 (2.0)	1 (2.0)	2 (4.0)	7 (14.0)

(표 4) 아파트, 좁은 집, 방수 부족에 관한 노부(모)와 주부의 3대용 주거의식

N = 50(%)

노부(모) \ 주 부	아 파 트				좁 은 집				방수 부족			
	불편 하다	보통 이다	관계 없다	계	불편 하다	보통 이다	관계 없다	계	불편 하다	보통 이다	관계 없다	계
불편하다	21 (42.0)	4 (8.0)	3 (6.0)	28 (56.0)	30 (60.0)	1 (2.0)	4 (8.0)	35 (70.0)	34 (68.0)	4 (8.0)	2 (4.0)	40 (80.0)
보통이다	6 (12.0)	6 (12.0)	2 (4.0)	14 (28.0)	8 (16.0)	2 (4.0)	1 (2.0)	11 (22.0)	8 (16.0)	0	0	8 (16.0)
관계없다	3 (6.0)	4 (8.0)	1 (2.0)	8 (16.0)	4 (8.0)	0	0	4 (8.0)	2 (4.0)	0	0	2 (4.0)
계	30 (60.0)	14 (28.0)	6 (12.0)	50 (100)	42 (84.0)	3 (6.0)	5 (10.0)	50 (100)	44 (88.0)	4 (8.0)	2 (4.0)	50 (100)

녀가 부모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74.0%)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아직 초·중학교에 재학하는 연령이고, 현재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연령 집단의 핵가족에 사는 자녀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손자녀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거주방법은 별거지향적(62.0%)인 경우가 높았으며, 노인시설주거(22.0%)도 높게 선호되고 있었다. 이러한 손자녀의 노인주거의식은 부모가 노인이 되어 자신과 함께 사는 경우와 자신이 노인이 된 경우 자신의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을 구별하여 이중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세대간의 동거의식에 대한 세대간 의견은 50% 이상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같은 가족내에서도 자녀 결혼후의 노인의 주거형태에 대해 세대간 의견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자녀 세대로 갈수록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덜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노인거주형태를 고려하고 있었다.

3. 3대동거용 주거에 관한 의식과 현 주거의 동거 적합도

주부와 노부(모)를 대상으로 '만약 3대동거가족이 아파트나, 좁은 집, 방의 수가 부족한 집에 산다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한 질문에 대해 노부(모)와 주

부 모두 방의 수, 주거 규모, 주거 유형의 순으로 불편함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세가지 조건 모두에 대해 주부가 노부(모)보다 불편함이 더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4〉). 따라서 3대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택의 방의 수가 우선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 주거 규모와 주거 유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주부가 노부(모)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와 주부의 동거주거 특성에 관한 의식의 일치도를 살펴보면, 방수가 적은 집에 3대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식은 세대간 일치도가 68.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좁은 집에 사는 것에 대한 의식(64.0%), 아파트에 사는 것에 대한 의식(56.0%)의 순이었다. 3대가 동거하는 주거특성 세가지에 관한 의식 모두에서 주부와 노부(모) 세대간 차이가 크지 않아 3대동거용 주거의 세가지 특성에 대한 두 세대간 주거의식이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3세대가 살기에 어느 정도 적합한가를 주거 유형, 주거 규모, 방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알아본 결과(〈표 5〉), 전체적으로 노부(모)는 3점 중 평균이 2.1점으로 다소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주부는 평균 1.9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부(모)가 주부보다 전체적으로 현 주거를 3대가 거주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주거특성별로 보면 노부(모)와 주부 모두 3대가

〈표 5〉 주거유형, 주거규모, 방의 수에 관한 현 주거의 동거적합도

N = 50(%)

노부(모)	주 부	주 거 유 형				주 거 규 모				방 의 수			
		부적합 하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계	부적합 하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계	부적합 하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계
부적합하다		6 (12.0)	3 (6.0)	4 (8.0)	13 (26.0)	14 (28.0)	5 (10.0)	1 (2.0)	20 (40.0)	17 (34.0)	5 (10.0)	2 (4.0)	24 (48.0)
보통이다		4 (8.0)	7 (14.0)	3 (6.0)	14 (28.0)	2 (4.0)	3 (6.0)	0	5 (10.0)	4 (8.0)	0	0	4 (8.0)
적합하다		3 (6.0)	10 (20.0)	10 (20.0)	23 (46.0)	5 (10.0)	7 (14.0)	13 (26.0)	25 (50.0)	5 (10.0)	5 (10.0)	12 (24.0)	22 (44.0)
계		13 (26.0)	20 (40.0)	17 (34.0)	50 (100)	21 (42.0)	15 (30.0)	14 (28.0)	50 (100)	26 (52.0)	10 (20.0)	14 (28.0)	50 (100)
평균	주부	2.1				1.9				1.8 (1.9)			
	노부(모)	2.2				2.1				2.0 (2.1)			

유의도 : 주거 규모 $\chi^2=18.64$ $P<.001$; 방의 수 $\chi^2=17.9$ $P<.01$

살기에 현 주거 유형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거 규모, 방의 수 순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세가지 주거특성의 동거적합도가 높은 순서는 주거의식에 나타난 3대동거주택의 중요도 순서와 반대로 나타나 3대가 동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특성이 현재 거주하는 주거에서는 가장 부적합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두 세대간의 주거적합도에 대한 세대간 일치도는 주거 규모 60.0%, 방의 수 58.0%, 주거 유형 46.0%로 나타났다. 주거 규모와 방의 수에 대해서는 주부와 노부(모) 세대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어 두 세대가 주거 규모와 방의 수에 대한 적합도를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주거 유형에 대해서는 두 세대가 각각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주택에 살면서 주거 유형, 주거 규모, 방의 수에 대해 세대간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가구도 소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세대별 3대 동거만족도

현재 3대가 동거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세대별로 알아본 결과(〈표 6〉), 노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4.1/5), 그 다음은 손자녀(3.9/5), 주부의(3.2/5) 순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의 78.0%, 손자녀의 64.0%, 주부의 40.0%가 현재 3대가 동거하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 내지 만족하는 편이었다. 노부(모)와 손자녀의 경우 3대가 동거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하는 응답이 거의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부의 20%는 매우 불만 내지 불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층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인부양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이 중년층에게 있으므로 이들의 동거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세대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부의 동거만족도와 손자녀의 동거만족도 사이에서만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gamma=.3641$, $P<.01$) 주부의 3대동거만족도가 높은 가족일수록 손자녀도 동거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부(모)와 주부의 동거만족도, 노부(모)와 손자녀의 동거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와 손자녀의 동거만족도에 편차가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대동거만족도가 노부(모)나 손자녀의 공간공유여부와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본 교차분석 결과가 유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방의 수가 충분하면 노부(모)

〈표 6〉 세대별 3대 동거에 관한 만족도

N = 50(%)

응답자 동거만족도	노 부 (모)	주 부	손 자 녀
매우 불만족함	0	2 (4.0)	0
불만족하는 편임	1 (2.0)	8 (16.0)	2 (4.0)
보 통	10 (20.0)	20 (40.0)	16 (32.0)
만족하는 편임	22 (44.0)	16 (32.0)	19 (38.0)
매우 만족함	17 (34.0)	4 (8.0)	13 (26.0)
평 균 (S.D.)	4.10 (.789)	3.24 (.960)	3.86 (.857)

와 손자녀가 전용실을 사용하지만 방의 수가 부족하여 조부(모)와 손자녀가 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거만족도는 감소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동거만족도와 주거적합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주부의 경우 현주거가 3대가 동거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주부일수록 3대동거에 대해서도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chi^2=6.25, P<.01$), 노부(모)의 경우는 동거만족도와 주거적합도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함께 사는 기혼자녀의 장남여부에 따라 동거만족도에 차이가 있어서($\chi^2=5.97, P<.01$), 장남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의 동거만족도가 장남이외의 아들가족과 사는 노인의 동거만족도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침실 수가 부족한 주택에 3대가 살면서 가족 적응을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3대동거가족을 대상으로 3대동거가족의 공간공유실태를 알아보고 그들의 노인주거의식과 주거적합도 및 동거만족도를 파악하여 3세대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국민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손자녀가 있는 가구를 학교를 중심으로 무선표집하여 한 가구의 3대 구성원 모두에게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50가구 150명을 조사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사용에 있어서는 방의 수에 관계없이 중

년자녀부부가 우선 전용실을 확보하고, 노부(모)의 40.0%와 손자녀의 76.0%는 방을 공유하고 있었다. 노인의 전용실 확보는 방의 수와 양친의 생존여부, 노인의 성별, 손자녀수 및 손자녀성별과 관련이 있었다. 독방을 갖지 않은 손자녀의 경우 주로 같은 성의 형제 자매 2명이 사용했으나, 연령이 낮은 막내나 할머니와 공유하거나 오누이와 방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독방을 갖지 않은 노인이나 손자녀의 60% 이상이 침실공간공유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의 수가 충분하면 노인이 독방을 사용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주거결합이 있는 주택에 대한 가족의 적응행동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자녀가 모두 결혼한 후 노인의 주거에 대해서는 손자녀 세대로 갈수록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반드시 이상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대신 살던 집에서 노부부만 또는 자녀가 사는 지역 가까이 또는 노인전용주택과 같은 다양한 노인거주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손자녀의 경우는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자녀가족과 사는 것이 좋으나, 자신이 노인이 되면 살던 집이나 노인전용주택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생각과 자신에 대한 생각을 구별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현재 3대가족이 함께 동거하는 상황에 따른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핵가족 동년배 집단과의 노인주거의식에 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3대동거를 위한 주거특성 중 주거 유형, 주거 규모, 방의 수에 관해서는 노부(모)와 주부 모두 방의 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주거 규모와 주

거 유형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세대간 일치도도 중요도의 순서와 같아서 두세대 모두 3대동거 주택은 방의 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같은 주거의식을 갖고 있었다. 3대가 동거하기에 현 주거는 노부(모)나 주부 모두 주거 유형이 가장 적합하고, 그 다음은 주거 규모와 방의 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주부보다 노부(모)가 적합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현 주택의 3대동거 적합도 수준은 3대동거를 위한 주거특성의 중요도와 반대 순으로 나타나 3대동거시 바라는 주거특성과 현 주거특성이 일치하지 않았다.

네째, 3대동거에 대해서는 노부(모), 손자녀, 주부의 순으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노부(모)와 손자녀 모두 전용실을 가지지 못한 사실이 동거만족도를 감소시키지는 않았으나, 주부는 현 주거가 3대가 동거하기에 적합도가 낮다고 평가할수록 동거만족도도 낮았다. 이러한 사실은 3대동거가족은 3대가 함께 살기에 적합한 주거특성을 갖춘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특히 주부의 3대동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부(모)의 동거만족도는 주거적합도보다는 동거하는 자녀의 장남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3대동거만족도는 주거특성 이외에 가족특성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3대동거가족은 노부(모)와 손자녀가 방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두 세대 모두가 대체로 만족하기는 하지만 방의 수가 많을수록 노부(모)나 손자녀의 독방 사용 비율이 높은 실정이며, 또한 현 주거의 3대동거적합도 중 방의 수에 대한 적합도가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할 때 3대가 동거하기 위해서는 방의 수 확보가 가장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방의 수가 부족한 것이 3대가 동거하기에 가장 불편하다는 주부나 노부(모)의 일치된 주거의식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각 세대별로 노인주거의식과 주거만족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대 가족의 노인주거의식이나 주거만족도를 연구할 때 어느 한 가족원을 대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그 가족을 잘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3대동거가족 연구는 가능한 각 세대 모두를 고려하여 주거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대한주택공사(1987). 3대가족형 공동주택 개발연구. 서울: 건우사.
- 2) 문숙재·차성란(1989). 3세대 동거가정의 주관적 주거과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 67-85.
- 3) 박하전(1985). 집합주택에 있어서의 3대 직계가족의 주생활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신경주·최정신(1989). 3대 동거형 아파트의 입주후 실태분석: 상계지역의 경우. 대한가정학회지 27(3), 89-102.
- 5) 신경주(1989). 중년층의 주요구축면에서 본 3대동거주택의 조건.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5), 71-84.
- 6) 신경주·조재순·곽인숙·최정신(1995). 한·미·일 노인주택연구의 방향. 한국생활과학연구(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13, 115-148.
- 7) 이가옥·서미경·고경환·박종돈(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8) 이연숙·오찬옥·이선미·백혜선(1992). 삼대가족의 공간적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6), 29-38.
- 9) 이혜순(1987). 중년층의 3대동거주택 조건에 관한 연구: 주거계획 및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조원덕(1984). 직계 3세대를 위한 주거계획.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지순·윤복자·홍영기·김은덕·신화경·최희재(1986). 노후생활주택단지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노후생활에 대한 주의식과 노후생활 주택단지에 대한 욕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4(1), 95-113.
- 12) 최정신(1990). 3대동거가족의 住要求: 중소도시 거주 중년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최정신(1992a). 대도시 중년층의 3대동거주택의 住要求(1) : 주요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6), 87-97.
- 14) 최정신(1992b). 대도시 중년층의 3대동거주택의 住要求(2) : 주택선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7), 11-21.
- 15) 최정신 · 신경주(1991a). 3대동거주택에 대한 주요구와 선택 : 중소도시 거주 중년층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1), 31-43.
- 16) 최정신 · 신경주(1991b). 가족특성이 3대동거주택에 대한 주요구에 미치는 영향 : 중소도시 거주 중년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9(1), 125-137.
- 17) 통계청(1990, 1995).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 통계청.
- 18)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연구보고서 200-3).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19) 한정애(1991). 3세대 동거주택 거주노인의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상계동 거주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Morris, W. E. & Winter, M.(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 John Wiley & Sons.